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2026년 새해, 새로운 시작의 기운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때론 한파가 대지를 감싸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보이지만, 이 침묵 속에서 다음 계절을 위한 생명의 잠재력이 굳건히 다져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위 틈새에서 피어나는 작은 꽃들도 겨울을 이겨내고 봄을 맞이하듯', 우리 농업과 농촌 역시 지금의 시련을 통해 더욱 견고한 미래를 일궈낼 것입니다.

농업미래전략연구소가 2026년을 앞두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주목해야 할 10대 이슈를 발표했습니다.

다. 기후 변화, 농가 경영 불안, 농촌 소멸 위기라는 현실적 난관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하는 이 복합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는 현명한 해법과 책임감 있는 자세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공급 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쌀 산업을 안정화하고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양곡법 개정 및 선진국형 소득 안정 정책 추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30년 만에 논의되는 농지 제도 개편은 농지의 공익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대두된 외부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공공성과 데이터 중심의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투명한 농산물 유통 체계를 확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처한 농어촌에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같은 새로운 활력소가 필요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에게 안정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농업의

게 할 것입니다.

2026년에 관심을 가져야 할 농업 관련 이슈들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은 기후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자연과,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현실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영적인 공동체의 문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적 요청 앞에 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 교회들은 농민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되어 고충을 듣고 희망을 나누는 사랑방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공정한 유통

깊은 겨울, 우리 농촌의 희망을 묵묵히 다집니다

농업 환경 변화에 발맞춘 지혜로운 해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미래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혁신 또한 시급합니다. 탄소 중립 시대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영농형 태양광은 신소득 창출과 환경 보전의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기회이나,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합의를 찾아야 합니다. 동시에 인공지능(AI)과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 농업이 일반 농가로 확산되면서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농업 환경을 구축해야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 통상 환경과 글로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농업의 세대교체가 필수적입니다. 기존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지원하고 청년 농업인들이 농업에 유입되어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농심천심(農心天心)' 운동처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야말로 농업이 지속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농업이 식량을 생산하는 것을 넘어 생명 존중과 공동체 유지라는 숭고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 사회가 함께 기억하고 지켜나가

구조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윤리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을 장려하는 데 앞장서야 합니다. 소비자는 믿음 안에서 농산물에 깃든 농부의 땅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산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정직하게 경작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는 우리 농업과 농촌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더욱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 담긴 희망과 사랑의 메시지가 이 땅 가득히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희년의 하나님 나라



박창수 목사
· 기독교학 박사
· 기독교경제학(사회윤리) 전공
· 희년사회 연구위원
· 주주권기독교대 공동대표

이스라엘의 주교는 보리와 밀인데, 이 보리와 밀은 모두 가을에 씨앗을 뿌리고 이듬해 봄에 거둔다. 그래서 구약 시대 이스라엘의 농사력은 파종기인 가을을 한 해의 시작으로 삼고 그 이듬해 보리와 밀의 수확기인 봄을 지나 각종 나무 열매들의 수확기인 여름의 마지막, 곧 가을 직전에 한 해의 끝으로 삼는다.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은 농사를 짓지 않는 해이므로, 가을에 시작하여 가을 직전에 마치는 한 해의 농사에 따른 구약 이스라엘의 농사력을 기준으로 삼아, 안식년과 희년도 각각 해의 시작을 파종기인 가을로 정하고, 해의 끝을 곡식과 나무 열매의 수확이 모두 끝나는 가을 직전으로 정하게 된다. 그래서 희년은 제50년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한해 전인 제49년 가을에 시작하여, 제50년 가을 직전에 마친다. 안식년도 제7년인데 정확하게는 한해 전인 제6년 가을에 시작하여, 제7년 가을 직전에 마친다. 이는 안식일이 제7일인데 정확하게는 하루 전인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라는 뜻은,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의 가을에는 희년이 시작되어 심지도 못하고, 또 일곱째 해의 봄에는 안식년이므로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적의 은혜를 제시하신다. 21절,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제6년(제48년) 봄 수확기에 장차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신다는 것이다. 왜 3년일까? 그 이유는 제6년(제48년) 봄 수확기부터 제9년(제51년) 봄 수확기까지 만 3년이기 때문이다. 제6년(제48년) 봄 수확기에 장차 3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신다는 것은 한마디로 기적의 은혜이다. 이는 마치 하나님이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날마다 만나를 주시되, 5일 동안은 하루 분량을 주시다가 제6일에는 그 이튿날 안식일분까지 합하여 이를 분량을 주신 것과 비슷하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제6일에 이를 분량의 만나를 주신 것처럼,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제6년(제48년)에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주관하시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을 지킬 수 있도록 초자연적인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다.

탐욕의 문제

제6일 저녁에 시작하여, 제7일 저녁 직전에 마치는 것과 같다.

안식일(제7일): 제6일 저녁-제7일 저녁 직전
안식년(제7년): 제6년 가을-제7년 가을 직전
희년(제50년): 제49년 가을-제50년 가을 직전

레위기 25:20-22에는 안식년의 땅 안식과 희년의 땅 안식이 모두 들어 있는데, 안식년은 제6년(제48년) 가을부터 제7년(제49년) 가을 직전까지이고, 희년은 제7년(제49년) 가을부터 제8년(제50년) 가을 직전까지이다.

안식년과 희년에는 모두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49년 안식년에도 땅을 쉬고, 그 이듬해인 제50년 희년에도 땅을 쉬게 되어, 2년 연속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된다. 이처럼 한 해도 아니고 두 해나 농사를 짓지 않고 땅을 쉬게 해야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그럼 그 안식년과 희년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까?"라는 의문과 불만이 나올 법하다. 그것이 바로 20절에 담겨 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느냐." 여기서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에는, 제7년(제49년) 가을의 파종 금지(희년)와 그 직전인 제7년(제49년) 봄의 수확 금지(안식년)가 모두 들어있다. 곧 희년 땅 안식과 안식년 땅 안식의 규정이 함께 겹쳐

만약 이스라엘이 안식년과 희년의 땅 안식 명령을 어긴다면, 그것은 궁핍의 문제가 아니라 탐욕의 문제이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전에 먼저 삼 년 동안 쓰기에 족한 소출을 주시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채우시는 기적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과 희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농사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가 충족되지 못한 궁핍 때문이 아니라 더 많이 갖겠다는 탐욕 때문인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야 한다(마 6:31-33).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는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탐욕까지 충족시켜 주시지는 않는다. 사실 탐욕에는 끝이 없기 때문에 탐욕을 충족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도 윤리는 탐욕을 가장 경계한다. 탐욕은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골 3:5). 그리고 탐욕은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는다(약 1:15).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탐욕의 유혹을 떨쳐내고, 죄와 사망으로 이어지고 말 탐욕이라는 우상숭배를 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우선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인 막내가 도전에 나섰다. 전교회생회장에게 출마하겠다고 준비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아빠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지 말하면 도와줄게?"라고 응원하였다. 아들은 "안 도와줘도 되요"라고 한다. 그래도 "아빠가 도울 일이 될지도 몰라"라고 하였지만 "저의 방법이 있어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라고 한다. 그래서 "그래 도움이 필요하면 말해"하고 대화를 마쳤다. 아들은 이것저것 무엇인가를 했다.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아빠 회장에 당선이 되었어요"라고 한다. 스스로 친구들과 함께 해낸 일이다. 당선축하와 함께 "도전하는 태도가 더 멋지고 훌륭하다. 더 겸손해야 한다."라고 말해 주었다. 부모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게 되었다.

어머니의 지혜라는 글이다. 조선시대 순조 때 김학성이라는 문관이 있었다.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다. 김학성의 집은 매우 가난해서 어머니가 남의 집에서 부엌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으로 근근이 살아갔고 있었다.

어느 날이었다. 어머니가 뒤뜰에서 방아를 찧고 있었다. 그런데 어디서 쇠붙이 소리가 들렸다. 저마를 낚아챈다.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앉혀 놓고 그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 때의 내 생각이 났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한 너희들을 보니, 죽어서 너희 아버지를 뵈어도 할 말이 있게 되었구나."

"자신을 믿어라!"

을 열어보았더니, 이게 웬일인가? 어머니는 너무 놀라 뒤로 넘어질 뻔 했다. 항아리 안에는 황금이 가득 들어 있었던 것이다. 어머니는 항아리를 끌어안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런데 어머니는 갑자기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니야.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 되지. 그리고는 어머니는 땅을 더 깊이 파고서 항아리를 다시 묻어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엔 그 집을 팔고 다른 곳으

로 이사까지 해 버렸다. 어머니는 더욱 열심히 일을 해서 아이들을 공부시켰고, 아이들도 그런 어머니의 노고에 보답이라도 하듯이 열심히 공부했다. 얼마 후, 김학성과 동생 모두 순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한중 해 형조판서에까지 올랐다. 어느 해 아버지의 제삿날을 맞아, 어머니는 두 아들을 앉혀 놓고 그 때의 일을 들려주었다. "그 때의 내 생각이 났던 것 같다. 이제 이렇게 훌륭하게 장성한 너희들을 보니, 죽어서 너희 아버지를 뵈어도 할 말이 있게 되었구나."

나. "어머니, 그런 엄청난 돈이 있었으면 어머니께서 그렇게 고생할 뻔 했을 것이고, 저희도 배불리 먹고 많은 책을 사서 볼 수 있었을 터인데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다. "재물은 너희가 충분한 능력을 키우면 저절로 따라오는 법이지만, 요행으로 얻은 재산은 쉽게 사라지는 법이다. 땅을 묻어 얻은 능력이야말로 정말 귀한 재산이지. 이 어머니는 너희에게 노력해서 얻은 성공

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고 싶었던 것이다."

무엇인가 도전하려면 두려움이 있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무엇인가를 이루려면 도전해야 한다. 부모는 발을 떼 먹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응원하는 사람이다. 도전하다 보면 실수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래도 직접해보아야 한다. 미래는 알 수가 없는 새로운 시대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변한다.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극복하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된다.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미래다.



최용남

· 한국청소년사역연구소 대표
· 예정통합 전남노회 전도목사
· 행복한 세상 선명한 미래1,2 저자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노블요양병원

백운요양병원

의료선교병원
나사렛요양병원

**매일 드리지는 예배와
현대의학이 접목된 나사렛요양병원은
전인적인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선교병원입니다.**

**진료
과목**

**뇌출혈, 뇌경색, 치매, 정신건강, 한방치료
재활치료, 노인만성질환전문**

58228 전남 나주시 남평읍 세남로 1550
직통 : 061)339-9905. FAX 061)334-2345
이사장 - 강봉규 목사 tel.010-2604-0560
상 담 - 김성기 사무국장(집사) tel.010-7676-6706
<http://peacemind.co.kr>